

# 지역은 누가 돌보는가? 지역 보건복지 인력의 미래

2025. 7. 8.(화) 13:00~18: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주최 |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 2024년까지 매년 개최되던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이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초청의 말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가 7월 8일에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5년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초고령화가 보건복지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이트 포럼의 주제는 지역의 돌봄위기와 초고령화 국면에서 펼쳐질 ‘지역 보건복지인력의 미래’입니다.

‘돌봄’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한다면 ‘돌보는 사람’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지역 인구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돌보는 사람’의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인색했습니다. 특히 공공 돌봄체계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한편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돌보는 사람이 처하는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은 없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의 위기는 곧 ‘돌봄의 위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윤태호 교수님과 강혜규 박사님 두 분이 각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에 대한 이성환 교수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연구자의 흥미로운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창간된 역사 깊은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는 2016년부터는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름을 인사이트 포럼으로 바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리가 한국의 보건복지 연구에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 선생님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초고령화 국면에서의 지역 보건복지 인력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초고령화가 가져올 돌봄 제공자의 위기를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학문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8일에 반갑게 만나 뵈겠습니다.

2025년 6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주은선**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1부   우수논문 시상식		사회 배재용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0~13:50	개회사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시상	우수논문 시상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우수논문 심사위원장
13:50~14:00	휴식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14:00~15:45	좌장 인사	발표와 토론의 의의, 발표자·토론자 소개
	주제 발표 (각 30분)	1. 지역인구 감소 시대, 지역 보건의로 인력의 과제 윤태호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
		2. 초고령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위한 복지 부문 인력 정책: 현안과 과제 강혜규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일본의 지역소멸과 보건복지 인재 확보 대책: 그 궤적과 전망 이성환 교수(마쓰모토대학 종합경영학부)
15:45~16:00	휴식	
16:00~17:30	지정토론 (각 15분)	박건희 원장(평창군보건의료원) 어유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자유토론 (30분)	참석자 전체
17:30~18:00	정리 및 폐회	